

정책현장탐방

- 전혀 사소하지 않은 폭력
: (사)한국여성의전화

전혀 사소하지 않은 폭력 : (사)한국여성의전화

젠더리뷰 2017년 봄호 정책현장탐방은 1983년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설립된 (사)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여성주의 상담, 관련 법 제 ·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온 고미경 상임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전무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였고,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1987년 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 당시 설립 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폭력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 아래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운동을 이끌어온 선배 활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부장제에 기반한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가정 내 폭력 철폐는 물론 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계적 방안으로서 전문상담과 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창립취지문을 통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모든 활동이 여성운동의 일환임을 명시하고,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평등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부설 기관으로 관련 상담소 32곳과 쉼터 67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쉼터”라는 용어조차 없던 1987년 피해 여성을 위한 한국 최초 쉼터를 개소한 이후, 쉼터는 여성 폭력에 대한 저항 공간으로서 피해여성에게 대한 의료 · 법률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2.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 소개된 활동내용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폭력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인식개선 캠페인, 여성주의 교육 및 법제도 정책 감시 및 제안 등 다양한데요. 이들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활동내용을 구성하시게 된 것도 각각의 이유와 배경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여성 대상 폭력 철폐를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를 바꾸어나갈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한다는 것은 뿌리 깊은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통념을 바뀌어나가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 지원을 통한**



현장성 확보는 물론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를 만들어 평등한 사회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적 통념을 개선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www.hotline.or.kr)

[그림 1] 한국여성의전화 활동

첫째, 상담, 의료·법률지원, 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가정폭력 하에 피해자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범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되지 않도록 돕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여성들이 폭력적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쉼터를 운영하여 여성주의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둘째, 이러한 여성 대상 폭력을 법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도록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처벌법(가칭),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등 여성폭력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성인권영화제(Film Festival for Women’s Rights)를 개최하고, 여성폭력예방 공익광고를 기획하는 한편, 여성주의 의식향상을 위한 여성주의 아카데미 개최 및 강사·상담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시민이 결합한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일상 생활공간에서 모든 시민이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3. 한국여성의전화 활동을 통해 이룩한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여 년 간의 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는 여성 대상 폭력을 단순 폭력이 아닌 우리 사회에 내재된 젠더 불평등의 문제로 가시화 할 수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제도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폭력·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해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는데,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률지원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왔습니다. 2013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 무고혐의를 무죄판결로 이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되었고,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무법인 지평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원하면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임을 명백히 하고, 성폭력 무고 인지 조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2년 8개월 간 3심의 재판을 거친 끝에 여성 피해자는 자신에게 씌워진 ‘무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¹⁾

물론 가정폭력 관련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규정을 명시함에 있어 우리의 입장이 제한적으로 수용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가족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해 다뤄질 소지가 있으며(제1조), 가해자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9조의 2)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올해가 가정폭력처벌법 및 방지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정폭력 의제를 이끌어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올해를 맞이하는 감회가 남다를 거 같습니다. 올해 사업이나 활동방향은 무엇입니까?

창립 당시부터 아내폭력 문제를 명확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여성인권 제고를 위해 관련법 제·개정 운동을 지속해왔지만, 여전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특히 1990년대 사회인식에 기반해 제정된 가정폭력관련 법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피해여성의 치유와 자립에 대한 고민도 넓혀가야 합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법 및 처벌법의 일부조항 개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여성폭력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목적조항에서 피해가정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우선시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몇 건의 스토킹처벌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화요노평(20160830),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를 벗기 위해 3심까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s://hotline.or.kr:41759/index.php?mid=board_statement&category=23910&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AC%B4%EA%B3%A0&document_srl=27766, 검색일: 2017.3.28.)

2) 한국여성의전화(2017),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출판사: 오월의봄



여성폭력 피해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3월 초 심터를 거쳐간 8인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발간 되었습니다.²⁾ 피해여성들이 후유증을 치유하고, 욕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피해당사자 집담회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20대 인권활동가 양성 및 가정폭력피해 10대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5.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6년 남편·애인에 의한 폭력에 희생된 여성이 최소 82명이라는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³⁾ 여성대상 폭력근절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각종 제도들이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대상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여성대상 폭력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그 사건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임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2015년 간 살인범죄 여성 피해자 수는 총 2,039명으로 이는 약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뜻합니다.⁴⁾ 여성대상 폭력이 이처럼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폭력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개인 사유로 사소화되거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때에야 주목받게 됩니다.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의 경우, 여성혐오에 기반한 극단적 살인이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 개인의 정신질환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닌,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희석되는 것이죠. 이에 여성대상 폭력 철폐의 노력은 여성대상 폭력을 우리사회의 젠더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성(性)에 기반한 차별적 통념·관습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6. 최근 들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도 문제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소한’,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된 초기상담 2,107건 중에서 연인이나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전체 상담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⁵⁾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여성대상 폭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진한 점은 사실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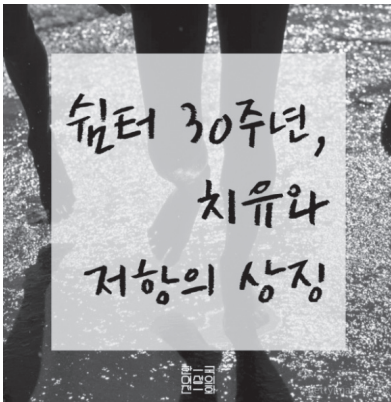
3) 한국여성의전화(2017), “2016년 분노의 게이저: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분석” (검색일 : 2017.3.21.) https://hotline.or.kr:41759/board_statistics/31000

뉴스시(2017.3.15.), “작년 남편애인에 살해당한 여성 최소 82명” (검색일 : 2017.3.16.)

http://www.news1.com/view/?id=NISX20170315_0014766137&clD=10201&plD=10200#

4) 한국여성의전화(2017), “2016년 분노의 게이저: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분석” (검색일 : 2017.3.21.) https://hotline.or.kr:41759/board_statistics/31000

5) 한국여성의전화(2017), “2016년 분노의 게이저: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분석” (검색일 : 2017.3.21.) https://hotline.or.kr:41759/board_statistics/31000



[화요논평(2017.3.14.) 이미지 중]

대상 폭력은 성별고정관념(아내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에 입각해 발생한다는 점과 반복적이라는 점, 일상 생활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관계·공간 등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피신할 곳이 없는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쉼터를 운영해 피해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 쉼터가 피해여성 보호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여성피해자의 치유와 주체적 삶의 권리 확보,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 쉼터 개소 30주년을 맞아 「보호」를 넘어 「자립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생존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장 공간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쉼터의 역할을 알리고, 피해여성 자립 및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포털사이트 내 스토리펀딩도 시작했습니다. 각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⁶⁾

7. 최근 들어 ‘여성대상 폭력’을 넘어서서 ‘젠더기반 폭력’ 혹은 ‘젠더폭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젠더기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정폭력, 여성대상 폭력은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화된 폭력입니다. 또 성별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제에 의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설립 초기부터 여성대상 폭력을 젠더기반 폭력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폭력은 힘과 권력 관계에 기초하고, 차별의 가장 극단적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사회문화 개선 및 남녀 간 암묵적 권력관계와 성역할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최근에는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⁷⁾ 일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첫 징후 발생 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먼지차별⁸⁾처럼 일상적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차별구조에 대한 대항력과 이를 인지하는 감수성을 키워야하겠죠.

여성과 남성,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 인식이 한번에,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갈 때, 사회는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한국여성 의전화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쉼없이 달려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6) “쉼터, 그런 말조차 없던 시절”, 다음 스토리 펀딩(<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3703>)

7)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인식변화 캠페인,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www.antiviolence.kr (검색일: 2017.3.21.)

8) 먼지차별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처에 깔려있고, 유해하며, 늘 치우지 않으면 쌓이는 ‘먼지’ 와도 같은 차별을 의미함(한국여성의전화,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캠페인 중)